



기술사제도 선진화의 교두보 마련, 이정만 명예회장

- 대담일시 : 2011년 4월 13일 18:00
- 장 소 : 한국기술사회 명예회장실
- 대 담 : 손우화(토목시공) 홍보부위원장, 구수연 편집담당

한국기술사회 제20대(2007.03.01~2010.02.28) 회장을 역임하셨던 이정만 명예회장님은 토목시공기술사로서 각종사업법령에 기술사활동영역 확대 반영 및 우대규정 강화, 회 재정 건전화, 자체교육장 확보 등 회 발전에 힘썼으며 CPD교육을 정착시켰다. 이정만 명예회장은 1962년 한양대학교 토목과 졸업, 1995년에는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현대건설(주) 이사를 거쳐 (주)삼우기술단 대표이사, 1993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창립, 2001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다음기술단(주) 회장을 맡고 계신다. 2009년 과학의 날에 「과학기술훈장 혁신장(2등급)」을 받았다.

Q 재임 시에 주요 활동사항과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임 시에는 기술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과학기술부 중심으로 일관성이 유지 되어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저는 수십년간 허물어진 기술사제도와 기술사 위상 바로세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2007년 1월 26일(법률제8268호)에 개정 공포한 기술사법은 6개월이 지난 2007년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 되

었지요. 과학기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및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에 대비하여 국내체제 정비, 기술사 계속교육제도의 도입,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에 역점을 두어 기술사에 대한 자세한 이력관리, 업무처리 자동화, CPD 교육 정착, 기술사대회 개최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2007년 9월 10일 과학기술부 고시 2007-16호에 따라 한국기술사회를 기술사 신고 등의 위탁업무 수행기

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우리 회가 수탁 받은 업무는 7가지로서 「기술사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사무소등록 기술사의 실적관리, 「기술사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 「국가간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심사 및 국제기술사자격인증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 등입니다.

또한 2007년 12월 24일 기술사 교육훈련기관으로도 지정 되어 현재 지방단위 및 기업단위, E-learning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모형을 개발하여 기술사들의 참여와 협조로 교육훈련제도의 이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사법에 근거하여 국제기술사(APEC Engineer 및 EMF IntPE)는 2008년 12월 31일에 처음 배출되어 현재 970여명에 이른다고 들었습니다.

재임 시 힘들었던 기억도 주마등처럼 스쳐지나 가는군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기술사 자격종목을 국제기준과 산업구조에 맞도록 정비하는데 89개나 되는 종목 간에 업역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도 있어 이를 조정하고 정비안을 만드는데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때 각 분회장들의 의견 수렴도 충분히 했는데, 어떤 제도든 100%충족시킬 수 없는건데 아직도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합니다. 국제적으로 15~20종목으로 분류하는 기준에 접근해 가야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사 시험근거를 기술사법으로 이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관계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는 등 기술사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국내 환경이 아직 덜 성숙되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애로사항이 많았지요.

Q 전국기술사대회는 올해 5회째를 맞게 되는데요. 전국기술사대회를 열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전 종목의 기술사가 한 군데에 모여 축제의 장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지요. 미국기술사회(NSPE)와 일본기술사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국기술사연차대회”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도 전국기술사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2007년 9월 29일에 열린 제1회 기술사대회는 기술사 800여명이 한양대에 모여 기술사 종목별 교육훈련(CPD) 세션을 프로그램하여 개최하였지요. 오전에는 기본교육이었는데, 전 미국기술사회(NSPE) 로버트 S. 밀러 3세 회장의 특별강연이 있었습니다.



▲ 제1회 전국기술사대회 (이정만 명예회장과 로버트 S. 밀러 전 미국기술사회 회장)

오후에는 29개 세션의 전문교육으로 이뤄졌지요. 제2회 전국기술사대회 때는 NCEES(미국기술사시험위원회)의 진 콜리 회장을 초청하여 특별강연과 미국 FE/PE시험을 유치하는 업무협력협정을 맺기도 했지요. 올해는 5회째가 되는데, 전국기술사대회에 참여하는 기술사의 수도 2000명이 넘는 등 기술사대회는 이제 단순히 교육의 의미를 넘어서 기술사들의 화합과 통합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재임기간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기술사회 동호회 중에서 축구단, 산악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요. 그 중 산악회는 종종 제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6월 강원도 평창군의 오대산 산행 시에 27명 정도 기술사들이 동행했던 기억이 나네요. 노인봉과 청학동 소금강 코스였습니다. 그 때 제가 제일 먼저 노인봉에 올라갔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체력관리를 열심히 하면 젊은 사람 못지 않다는 걸 새삼 깨달았던 것이 지금까지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는군요. 또

하나는 2008년 2월에 서해안 기름제거를 위해 우리 회 임직원 및 회원 64명이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에 위치한 모재해수욕장에 가서 돌에 묻은 기름때를 천으로 닦아내는 복구에 동참했던 가슴 뿌듯한 기억이 나네요.



▲태안군 기름제거 자원봉사 활동

Q 앞으로 한국기술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언해 주십시오.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이 확정되어 2010까지 시행되어왔고,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차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기술사 자격제도의 글로벌화”로서, FTA 등을 통한 기술사의 해외진출, 기술사 자격제도의 선진화, 미래지향적인 업무영역설정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사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한국 기술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준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기술사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 주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기술사 시험근거를 기술사법으로 환원 시키는 것이 기술사제도 정상화의 핵심입니다.

Q 끝으로 기술사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공의 원칙은 ‘인내’와 ‘끈기’, ‘때를 놓치지 않는 판단과 결정’, ‘조직원과의 인화’라고 생각합니다. 뜻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다보면 분명히 그것은 이루어 집니다.

저는 29세부터 대규모 건설현장의 소장을 역임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소통에 대한 지혜를 많이 습득하였지요. 소통이 잘되면 화합이 잘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경력을 쌓고 일을 하게 되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재목이 되는 것입니다. 친화력은 조직을 한 덩어리로 통합하고 일의 성취에 괴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려운 일의 처리에도 잡음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때문에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어요.

최근의 공대생들은 남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전공과목의 학점이수보다 여학 등 스펙 쌓기에 유리한 과목의 이수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제가 공대 졸업 당시만 하더라도 전공 중심으로 160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더 적은 학점으로도 이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예전의 저의 시절보다 공부를 더 시간적으로 안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지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일본처럼 공학교육인증제와 기술사제도 연계가 필요합니다. 산업계 또한 공대생을 선발할 때 충분한 공학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우대하겠다는 요구가 뒤 따를 수 있도록 우리 기술사 후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어야 합니다.



▲이정만 명예회장과 손우화 기술사